

‘예향’ 南道정신 오롯이, 한국화 대가들의 예술혼을 만나다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展…오는 9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담백墨’ ‘아름다움色’ ‘예술創’ 주제…40인 대표작 선배
시대를 반추하고 세월따라 덧입혀진 농익은 전통의 향기

남도를 예향으로 조성한 한국화 대표 작가들 주시립미술관 제56전시실에서 열리는 남도 한국화 명작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다.



허건작 ‘하경산수’

남도 한국화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지닌 한국화의 진수를 감상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허백련, 허건, 천경자, 안동숙 등 4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도 한국화 작가들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전시는 남도 한국화 원로 작가 작품 중심으로 전통



허백련작 ‘금강산도’ 10폭 병풍

남종화 작품,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작품, 현대미술의 요소를 적용해 재창조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구분에 선보인다.

현존하는 허백련의 유일한 금강산 작품 ‘금강산도’를 비롯해 남도 실경을 전통적인 필법과 구도로 재해석한 남농 허건의 ‘하경산수’, 먹과 부드러운 채색으로 그린 정운명의 ‘매화도 일지’, 꽃과 나비를 소재로 한 천경자의 채색화 ‘접시꽃’, 비정형적인 색과 구성으로 독도를 조일적 자연으로 표현한 윤애근의 ‘空·독도II’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남도 한국화 대가들은 남종화, 채색화, 현대미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전시는 작품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 주제 ‘담백墨’에서는 순수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자연의 이치를 담은 남종화 계열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는 깨끗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순정한 사유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두 번째 주제 ‘아름다움色’은 감성적인 색을 넣어 기(氣)를 강조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감성적인 색채를 통해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채색화 중심 작품들이다. 남도 작가들은 독창적인 화법과 화려한 색채 사용을 통해 대중성과 개성을 함께 담아냈다.

세 번째 주제 ‘예술創’은 한국화의 다양함을 뜻한다. 이 섹션에서는 먹과 채색의 전통 위에 현대미

술의 조형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 작품들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확장을 제시한다. 이는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가르친 교수 및 제자 작가들의 현대적 시도를 통해 한국화의 동시대적 전개를 보여준다. 남도 한국화의 맥, 채색의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남도 한국화에 담긴 예술혼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흐름과 예술의 창조적 계승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의 미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가가 활동한 예향 남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세대적 공감·연대…눈부신 청춘의 일기장 본 듯

‘이화 1985’展…내달 30일까지 여수아트디오션 갤러리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는 6일 “오는 8월 30일까지 여수 디오션 호텔 1층 로비에서 이화여대 미술대학 85학번 동기 여섯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화 1985’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학 시절 함께 꿈을 키웠던 김선주, 박가나, 박은덕, 박현우, 정연주, 한여옥 작가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자의 예술 세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전시다.

김선주 작가는 꽃과 새의 날개를 모티브로 삶의 고통이 치유의 꽃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풀어낸다.

박가나 작가는 ‘The colour of the sky’ 연작에서 변화하는 하늘빛과 종교적 은유를 결합해 신앙과 삶의 여정을 빛으로 시각화하며, 박은덕 작가는 ‘Time Series Data’에서 기억의 틈을 상상으로 메우며 실재와 상상이 교차하는 다층적 이미지를 구성한다.

박현우 작가는 ‘어린왕자’ 시리즈를 통해 민화와 동화적 상상을 결합해 순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연주 작가는 ‘찬란한 봄의 기억’과 ‘일상의 잔영’을 드로잉과 스펀지 기법으로 추상화해 관람객의 감각을 자극한다.

더불어 한여옥 작가는 ‘기억 속의 시간’ 시리즈에서 유년의 기억과 자연 풍경을 섬세한 채색으로 되살려 시간의 흔적을 포착한다.

이들은 세대적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서로의 작품 세계를 응원하며, 관람객들에게 동년배 예술가로서 꾸준한 열정과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

박은경 아트디오션갤러리 관장은 “이화 1985展은 동년배 여성 작가들이 대학교 동기에서 예술의 동료로 함께 성장해 온 여정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40년간 서로를 응원하며 쌓아온 창작에 대한 열정과 용기가 관람객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위안으로 다가갈 것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김선주작 ‘셀렘 그 두번째’(사진 위), 박가나작 ‘The colour of the sky’

‘발레 언어’로 피어난 몬드리안의線과色

오는 18-19일 ACC 극장1

20세기 추상미술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색채에서 비롯된 ‘발레 언어’가 공연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8-19일 ACC 극장1에서 창작 발레 ‘몬드리안 더 라인 오브 옵세션(Mondrian The Line of Obsession)’을 개최한다.

‘선과 색’에 집착했던 몬드리안의 내면을 무용과 미디어아트, 음악이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펼쳐낸다. 특히 수직과 수평, 삼원색의 강렬한 조형 감각이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되며 관객을 예술과 집착의 경계로 안내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몬드리안’이 추구한 미술의 본질과 안무가 정형일이 추구하는 발레의 본질이 빛어낸 창의적인 무대 미학도 즐길 수 있다.

정형일은 음악을 수식하는 안무가답게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 영상기술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연출했다. 발레를 사랑하는 애호가든 물론 일반 관객들도 시각과 청각적 즐거움



창작발레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 공연 모습

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3시 등 총 2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